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 金剛會報



金剛禪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불기2560년(서기2016년) 12월 25일 (일요일) [제131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헤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06329)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무아통천 : 내가없으면 하늘문도 열린다

## 無我洞天

시간은 멈춰진 듯 항상 그 자리인가 했더니 나는 이미 늙어가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온갖 욕심 다 채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

만 권의 책을 읽은 것이 만 가지 번뇌가 되고, 컴퓨터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기도 하지만 게 임에 빠져 자신을 잃고 아상의 절벽에 추락을 자초한 이도 있지 아니한가.

다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는 이 순간 붉은 닭의 해인 정유(丁酉)년은 시작도 되기 전에 닭이 AI 수난을 겪는 것으로 경고음을 내

고 있다. 연말연시의 감회를 다듬어 텅빈 마음으로 세상을 위하고, 나없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 없이 청정국토 이루어 시비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하여 3만불의 시대가 아닌 5만불의 시대로 나아가 천하의 중심국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원하고, 이 발원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다.

시비하고 분쟁하는 마음을 다듬고, 경쟁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다듬어 화합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내가 없는 무아가 되고, 무아의 텅빈 마음이라야 5만불 10만불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 가장 안 좋은 시점이라고 느껴질 때 모두 스스로 자기를 버리고, 텅빈 마음으로 정유(丁酉)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심없고 사견없는 청정국토 이루어지길 발원하는 바이다.

金剛禪院長 慧炬

## 송구영신(送舊迎新) 법회 봉행

병신년을 보내고 정유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새해의 첫 예불, 새 희망의 설계를 해거 큰스님과 모든 도반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 일시 : 2016년 12월 31일(토) 오후 9시 30분
- ❖ 장소 :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

### 동안거 결제



동안거 불이실

11월 14일(음력 10월 15일) 오전 11시 큰스님의 동안거 결제 법문이 있었습니다. 큰스님께서

는 “결제(結制)란 3개월 동안 방석 하나에 내 생명을 모두 맡겨 버리는 것이고, 방석 하나에 내 몸을 완전히 묶어 버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방석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적은 것에 자기를 묶어 동요하지 않을 줄 알아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큰스님 말씀처럼 선방에 동안거 방부를 들인 약 120여명의 불자들은 3개월 동안 한 장의 방석 위에 마음을 묶고 몸을 묶어 다 같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제6회 금강경강송대회 대상



지난 11월 12일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시행된 제6회 전국 금강경 강송대회에서 저희 선원의 신도이자 가가합창단 단장인 보문행 불자님이 영예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보문행 불자님은 3회

때부터 계속해서 출전하여 3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진하는 저력을 보여 드디어 이번 6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문행 불자님은 “훌륭한 분들이 많은 데 상을 받게 돼 송구하며 이 모든 것이 헤거스님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겸손하며,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온 세상이 불국정토가 되기를 발원하며 가가합창단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대중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선원 신도로서 대상 수상자는 제1회 때 자운행 불자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는 5년 만의 일입니다.

### YES 센터방문 장학금 전달



2015년 7월부터 민일수행결사 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청소년 장학봉사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시작한 작은 봉사활동입니다. 법무부 산하 직업교육기관인 예스센터와 그룹홈인

등불의 집 학생들에게 매달 소액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현재 민일수행결사 팀원들이 매월 5,000원 이상 보시하고 있으며, 매월 예스센터 재학생 2명, 졸업생(대학생)1명, 등불의 집 학생 1명 등 모두 4명에게 각 10만원씩 매월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목) 덕원거사, 명원보살, 보리성보살, 대지행보살이 예스센터를 방문하여 큰스님을 대신해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청소년장학금봉사 동참계좌 (월 5천원 이상)
- 신한은행 : 100-031-105387 금강선원

### 제42기 선하불교대학 졸업식



12월 5일(월) 오후 1시 제42기 선하불교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개강하여 4개월 여 동안 불자 40여명은 큰스님의 지도로 불교 기본교리, 사찰예절, 기도 방법, 의전 등을 공부해 왔습니다. 4개월 동안 졸업생들은 배우고 익힌 입문과정으로 참 불자로 거듭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상과 수료증 수여에 이은 법문에서 큰스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불자가 되었으니 자기 자신을 이루어서 가는 곳, 부딪히는 인연마다 모두 이익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또한 공부하는 시작이 있고, 끝남이 있는 것이 아니니 계속해야 향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시며, 선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전 공부로 더욱더 자신을 다져 진정한 불자로 거듭 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회장으로는 김은영 불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 아름다운 보시

이번 제6회 금강경강송대회 단체전서 서울시장상을 받은 영석고 학생들이 상금으로 받은 30만원 전액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보시했습니다. 이 기금은 탄자니아 학생들을 위한 신발보내기에 사용됩니다. 파라미타 소속인 이 학생들은 신발 150켤레도 함께 기부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 설날 합동차례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제수를 마련하고, 전통적인 불교 제례법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 ❖ 일 시 : 2017년 1월 28일(토) 오전 10시 30분
- ❖ 장 소 : 금강선원 대법당
- ❖ 동참금 : 20만원 이상
- ❖ 계 좌 : 신한은행 100-025-513955 금강선원

## 신년 7일 합동 천도재 봉행

2017년 정유년 신년 7일 합동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업장소멸과 조상천도를 위한 진정한 효를 실천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많은 불자님들 수희 동참하시어 기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 ❖ 입 재 : 2017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 ❖ 회 향 : 2017년 2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
- ❖ 동참금 : 20만원 이상
- ❖ 계 좌 : 신한은행 100-025-513955 금강선원



### 제29기 기초참선 수료식



지난 12월12일(월) 오후 7시 4층 대법당에서 제29기 기초참선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개강하여 14주 동안 30여 명의 불자들은 큰스님의 지도로 좌선의 강의, 좌선실수, 집중방법, 몸과 마음 조절법을 익혀왔습니다.

이날 시상과 상당인증서 수여에 이은 법문에서 큰스님께서 "몸조절, 마음 조절이 참선이다. 내 몸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붙잡고, 마음이 일어나면 나온 자리를 규명하고, 안 일어난 마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참선이다. 더불어, 참선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번 경험이 공부하는 발심의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수료 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정기모임을 가지고 정진과 공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회장으로는 이종삼(중환) 거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 제4기 금강 명상 지도자 과정 수료식



17일(토) 오전10시 제4기 금강명상지도자 자격증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4일(토)부터 시작되었던 2급에 이어 1급, 전문 과정으로 구성된 금강명상지도자과정은 각 과정 당 8주씩 출석 이수해야 하는 7개월의 긴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4기는 25명이 함께 출발하였으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15명(3기 1명 포함)이었습니다.

금강명상지도자과정은 수업 및 지도시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실참 300시간, 좌선의, 심우송,

신심명 암송, 28주간의 유식30송 듣기과제, 각 과정별로 제시된 전문 필독서 6권의 레포트 제출, 1박2일 워크샵 등 명상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만만치 않은 과정인데, 이번 수료생 14명은 이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큰스님께서 법문에서 "지도자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인도해 주고, 지도해 줘야 할 책무가 있다. 이는 듣고 알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깊어지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수행정진하여 원을 꼭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수행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후 4기 수료생들은 회장 이종만 불자님, 총무 원의범 불자님을 중심으로 수요일 모여 계속 수행정진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만일수행결사회 1800일 회향 법회



만일수행결사회 1800일 회향 법회가 12월 14일(수) 오후1시 큰법당에서 봉행되었습니다. 큰스님을 모시고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법회에는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더해 도반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 시작을 시작으로 가가합창단의 축하, 새 회원들의 소개 및 인사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수행수기 발표와 환희지상 수상, 그리고 금강경 만독수행상 등 시상 순서에서는 많은 분들께 재발심의 동기가 부여되는 감동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큰스님께서 특별 법문을 통해 "금강선원 만일수행결사회가 성공 사례로 성장해 가고 있다. 남은 그만 보고 자기 부족한 것만 보는데는 이와 같은 수행결사가 최선이며 앞으로 만독, 만 시간의 독송과 참선 수행자들이 속속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천일 회향 때는 더 성대하고 특별한 법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자고도 당부하셨습니다.

1부 기념 법회에 이은 2부 도반 화합의 시간에는 수행수첩에 도장도 받고, 차담으로 특별 모임도 하면서 화기에애한 가운데 법회는 여법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수행수첩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만일수행결사회에서는 금강경암송 시연회를 개최하여 금강선원 전신도의 금강경 암송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 미리보는 다음 일정

#### ❖ 송구영신(送舊迎新) 법회 봉행

오는 12월 31일(토) 오후 9시 30분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송구영신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식전행사로 작은 음악회와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부처님 전에 예불 올리면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는 송구(送舊) 법회,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가장 먼저 부처님 전에 예불 올리면서 새해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영신(迎新) 법회로 진행됩니다.

송구법회는 예불과 참회계, 영신법회는 예불, 통알의식, 스님 법문, 큰스님께 세배, 도반들 간의 세배 순으로 진행되며, 통알의식은 부처님을 비롯한 삼보와 호법신중, 인연있는 일체 대중에 세배 드리는 불가의 전통의식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이 지침으로 삼을 귀한 말씀을 큰스님의 법문을 통해 듣고, 부처님 전에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발원하고,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송구영신법회에 가족 또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동참하셔서 뜻 깊은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 ❖ 성도재일 철야기도

1월 4일(수)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철야 정진이 있습니다. 성도절은 불탄절·열반절·출가일과 더불어 불교에서는 4대명절의 하나로 손꼽는 날입니다. 저희 선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成道)를 기념하기 위하여 오후 10시에 큰스님 법문을 시작으로 참선, 금강경독송, 염불, 예불 순으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철야정진이 진행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 설날합동차례

2017년 구정을 맞이하여 1월 28일(토)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설날합동차례를 지냅니다. 합동차례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제수를 마련하고, 전통적인 불교 제례법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설날합동차례에 동참하시어 가족과 함께 뜻 깊은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차례비는 20만원입니다.

#### ❖ 신년 3일기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강선원에서는 오는 1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신년 3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신년기도는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 나은 삶을 살자 부처님 전에 다짐하고 발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해도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고 평안하길 기원해 봅니다. 기도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기도비는 3만원입니다.

#### ❖ 입춘기도

오는 2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입춘기도를 봉행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무엇이든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는 헤게 큰스님께서 직접 쓰신 입춘지를 나누어 드립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기도비는 3만원입니다.





### 제6회 '마음을 비우는 보고(寶庫)' 금강경강송대회 개최

'마음을 비우는 보고(寶庫)' <금강경>의 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인 제6회 금강경강송대회가 11월 12일(토) 오전 9시 서울 자곡동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금강경 전체 32개본을 모두 암기해야 도전할 수 있는 개인 부문에 64명이, 자유분과 지정분을 대중들 앞에서 함께 외워 보이는 단체전에는 초중고 학생 5팀을 포함 모두 18개팀이 참가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 탄허기념박물관 1층 대법당 보광명전은 개회식을 기다리는 응시생과 자원봉사자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대회는 1교시 외위쓰기에 이어 2교시 주관식, 3교시 암송 등 개인분과와 4교시 단체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는 9시 20분 사회자 이동선(법명 선혜심)씨의 개회선언과 함께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봉독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동국대 불교대학장을 역임한 해주스님(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승원(중앙승가대 교수), 정천(동국대 백상원 학감), 벽공(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태경(홍익대 대학원 디자인과 교수), 소업(중앙승가대 박사과정), 서암(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스님 등 7명이었습니다. 해주스님은 "금강경의 한 사구계만 수지독송하더라도 그 공덕이 삼천大千 세계를 칠보로 장엄한 공덕보다 수승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응시생들의 긴장부터 풀어줬습니다. 스님은 이어 "그동안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 환희심을 느낀다. 그동안 닦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길 기원한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필기기준은 금강경 조계종 표준본과 금강선원본으로 한글과 한자로 표기할 수 있으며, 한자 필기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벽공스님의 '주의 사항 및 작성요령' 안내에 이어 심사위원장 해주스님이 단상에 오르자 응시생들의 눈은 추첨함으로 쏠렸습니다. "어떤 분(分)이 뽑힐지 저도 모르니 차분히 주어진 문제를 잘 정리 하길 바란다"는 격려와 함께 스님이 추첨함에서 하나의 '공'을 뽑았는데, '제17 구경무아분'과 '제29 위의 적정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제 1 법회인유분, 7 무득무설분, 12 존

중정교본, 17 구경무아분, 31 지견불생분이 주어졌습니다.

금강경을 얼마나 몸 속 깊이까지 체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2교시 주관식 필기시험에 이어 3교시는 개인 부문 암송. 제한시간 3분으로 응시생은 심사위원 앞에 앉아 지정분을 암송하고 심사위원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 평소 금강경 32개본을 막힘없이 외우던 응시생들 중 일부는 심사위원 앞에 앉는 순간 앞이 깜깜해지면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심사위원 스님들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가벼운 대화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학생 6팀과 군법당 '호국금강법우회'를 비롯한 일반 12개팀 등 총 18개팀의 제6회 금강경강송대회 4교시 단체전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금강경의 참 뜻을 실천하는 축제였습니다. 특히 단체부문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응시한 조계종 종립 초중고 학생들과 군장병들의 금강경 강송대회 참여는 금강경강송대회가 청소년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무대로의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귀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마무리 평을 부탁 받은 심사위원장 해주스님은 "모두 함께 한 독송만으로도 우리 모두 성불한 것 같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대화장 헤거스님은 군장병, 초등학교생들의 동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금강경 생활화에 좀 더 전념하여 이 세상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한 번 더 발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6주년 기념 금강경 강송대회 시상식 봉행



11월19일(토) 오후 서울 자곡동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한 이는 박인숙(59, 법명 보문행)씨로 상장과 함께 100만원의 상금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김명옥, 우수상은 신정택(불교신문 사장상), 최우진(불교TV 회장상), 안규철 씨(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상), 특별상인 탄허기념박물관장은 이문수·김경중·이영순 씨 등 3명, 장려상은 오정순 씨 등 8명이 수상했습니다. 또 학생부문 서울시장상은 노경석(고1), 강남구청장상은 윤동호(초6), 탄허기념박물관장상은 윤동현(초3) 어린이가 차지했으며, 윤동호·동현 형제는 이번 대회 최연소 응시자이며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단체부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해 창의적인 모습을 보인 조계종립 초중고 학생들이 시상식에서도 많은 박수와 함께 격려를 받았습니다. 동대부속 의정부 영석교 '아난다'와 동대부교 '우담바라' 팀은 서울시장상, 동대부교 '금강역사', 동대부속 은석초등학교 '은석연화어린이들'은 강남구청장상, 동대부여중 '오온', 동대부중 '우리모두연꽃처럼' 팀은 탄허기념박물관장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단체 일반부문에서도 장병들로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6포병여단 8297태극포병대대 정덕영 병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호국금강법우회'가 최우수상, '서울가사체금강경' 팀이 우수상, 자재회(정수조)·용수선등·대치2선등 3개팀이 특별상인 탄허기념박물관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 청소년 참여에 큰 도움을 준 동국대 부속고 교법사들과 군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담아 고광권 1575 전차대대 포교사, 8297부대 민대근 포병대대장과 백승호 보급관에게 대회장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시상에 앞서 심사위원장 해주스님은 "개인과 단체부문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 초등학교생부터 노보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고무 참여해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혀 평소 응시자들의 <금강경> 수지독송 노

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했습니다. 해주스님은 심사평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암송하기에 다소 어려웠을 텐데 또렷하게 금강경을 암송하고, 100세시대 또는 다수(茶壽)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만큼 연세 드신 분들도 분명한 발음으로 화합하여 금강경을 암송하고, 또 시간 내기 쉽지 않은 군불자들이 함께 우렁찬 소리로 금강경을 합송하는 모습을 볼 때, 부처님의 혜명이 이어지는 현장에 있는 듯하여 든든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회장 해주스님(금강선원 선원장)은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초중고교생 등 미래 세대의 참여와 부산 등 타지역에서 금강경수지독송으로 수행하는 불자들을 격려하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해주스님은 자주국가로서의 정체성과 혼란한 정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학원가기에 바쁜 초중고 학생들이 금강경강송대회 개인단체부문에 나와 일정 내내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을 안정시켜 나갈 우리의 미래를 보았다"고 격려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식후 공연 중요무형문화재 1호 종묘제례악 연주자들의 대부분이 젊은 세대라고 밝히면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진 젊은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다"며 "강송대회가 내년에는 더 성대하게 펼쳐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금강경강송대회는 금강선원 가가합창단의 공연과 동희스님 등 6명의 스님들이 올리는 중요무형문화재 50호 범패 등을 식전공연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공연을 식후행사 무대에 올려 전통문화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집사 광태규 씨를 중심으로 보태명 중 전폐희근, 정대업 중 소무 독경 영관이 펼쳐졌습니다. 파리정악 및 대취타 보존회 회원으로 일무 2명 약장 1명 외 총25명이 보광명전을 장엄했습니다. 채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비롯한 전통소리 춤꾼들이 펼치는 남도잡가 육자배기와 공연은 이날 대회의 흥을 한껏 돋우며 전통소리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6주년을 겸한 이날 행사를 통해 금강선원은 늘 전통소리,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려왔습니다.



### 매번 금강경을 새롭게 새기며



먼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주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선원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반들께서 원각경 계송을 즐줄 외우시는 것을 보고 외우는 것에는 도통 자신이 없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 있던 어느 봄날 아침, 양재천의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금강경의 첫 구절을 읽으면서 스님의 가르침대로 어떻게든 꼭 외워야겠다고 발심을 하였습니다.

때마침 금강경 강송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참가자들의 응시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한자 기초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3회 금강경 강송대회부터 참가를 시작하여, 4회, 5회, 올해 제6회 까지 꼭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가할 때마다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었지만 그 보다는 시험을 봤다는 즐

거움이 더욱 컸었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뜻에 집착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되는 대로 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금강경 목요반에 참석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도반들끼리 모여서 리더의 지도하에 공부도 하고 서로 이끌어 주는 이 모임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송대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항상 짬나는 대로 읽고 쓰고 하면서 금

강경 해설 판도 읽어보고, 수보리도 되어보고, 아난존자도 되어 보았습니다. 합창 음성공양을 하다 보니 환희심이 절로 생겨 매번 금강경을 새롭게 새기게 됩니다.

보살운동 실천도량인 우리 선원의 이념인 정신(正信), 정해(正解), 정행(正行)을 바탕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인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하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가슴에 담아 오늘도 부처님을 닮아가리라는 발원을 해봅니다.

글 / 보문행 (제6회 전국 금강경 강송대회 대상)

### 선하불교대학을 마치며



저마다 소중하게 키워온 불심으로 수료식 축하의 장에서 어울리고 있습니다.

큰 산이 머금은 물은 계곡으로 흘러 실개천을 만들고, 마침내 유유히 흐르는 강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도

42기 불교 대학 여러분들은 헤쳐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 도량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각별한 노력과 인내로 수료하심을 축하합니다. 사무소 관계자분들과 점심 때마다 공양을 준비해 주신 봉사자 분자님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의 노고로 불교 경전에 대한 배움과 전통이 이어지고, 오늘과 내일의 금강선원 발전에

기대들이 되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늘 밝은 미소로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부연설명을 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마다 참 따뜻한 정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엄경 법문 시간에 큰스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업으로 만들어진 마음자리

를 바꾸려면 첫째,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불교 대학에서 큰스님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앞으로 금강선원 불자님들은 지혜로운 큰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 김은영(42기 불교대학 회장)

###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해 준 행운의 선물



지도자 과정과의 인연은 작년 여름 8일간의 일정으로 참가한 몽골 학습탐사에서 김우현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드넓은 초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학습 및 탐사를 하는 캠프였는데 차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엄청난 양의 세계사 내용을 암기하여 테스트를 보았다. 탐원들 모두 암기하느라 짹짹하고 있는 반면에 김우현 선생님은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듯한 괴력을 보여 주며 단시간에 암기를 끝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암기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전두엽 훈련 결과라며 금강명상지도자 과정에서 그런 훈련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다.

10개월의 오랜 기다림 끝에 6월4일 탄허기념박물관에 도착해서 법복을 파는 보살에게 옷을 사 입고 얼떨떨한 상

태에서 지도자 과정을 시작했다. 광명장보살님(김우현선생님)의 돌변한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후 반야심경, 자비관을 읽는 일련의 절차를 어색하게 따라 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왕 받을 들어 놓았으니까 2급까지만 해 보자는 심정으로 적응을 해 나갔다. 그런데 헤거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면서 무조건 끝까지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처음해 보는 참선은 정말 힘이 들었다. 눈은 아프고 눈물이 나서 집중표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다리는 왜 그리 아픈지 자세를 유지하느라 온 몸이 팍팍범벅으로 되기도 했다. 100시간을 채우기 위해 하루 3~4시간씩을 앉아야 되는 날이 많다 보니 몸살이 나서 한동안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독음도 잘 되지 않는 좌선의, 심우도, 신심명 등을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더욱 괴로웠다. 집중되지 않는 책을 읽고 독후감 쓰는 것 역시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기특하게 긴 시간을 잘 버텨 몸과 마음에 변화가 왔다. 수시로 총혈되었던 눈이 맑아졌고, 가물가물 하던 기억력도 많이 회복되었다. 나를 떠났던 책도 내 손으로 들어왔다. 일상에 매몰되어 있던 나의 생활 패턴도 많이 변했다. 참선으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평소엔 즐거움을 주던 생활의 요소들도 바뀌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천해야겠다는 삶의 목표도 생겼다. 과제 해결하느라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쪼개서 초기불교, 아비담마, 신심명 등의 불교강의들을 찾아서 열심히 듣고 있다.

공주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는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도반들을 발견하는 기회였다. 묵언 속에서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은 총총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도착한 마곡사에서 지심귀명례로 시작하는 예불의 성스러움은 아직도 가슴에 긴 여운으로 남아 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108배 참

선(50분), 독서(20분)으로 하루를 열었다. 지도자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이다. 지도자 과정은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간다는 불안감으로 방황하고 있던 나에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해 준 행운의 선물이었다.

그동안 수행의지를 불타오르게 해주신 헤거스님의 법문과 수행면담, 우리의 무지함을 조금이라도 깨우쳐 보려고 온갖 열정을 쏟아 부으신 광명장님, 오합지졸들을 정예군단으로 훈련시키느라 애쓰신 문수월님, 독후감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정리해 주신 박정문님, 더듬거리는 암기내용을 인내력으로 끝까지 들어주신 이종덕님, 늦게 합세하신 탓에 무한한 수행의 노하우를 전수받지 못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신 대지행보살님 등 지도자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글 / 민혜숙(4기 지도자과정 수료생)



### 기초참선반을 수료하면서...



참선! 얼마나 매력적인가. 최고급 정신 문화를 접하고자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용기를 내어 기초참선반 문을 두드렸다. 선수행을 배우면 혹여 좌탈입망시에도 평온하고, 적어도 지옥에는 안 떨어질 거란 보장 하에 잘만하면 언젠간 나도 일거에 견성성불 할 수 있을 거란 환타지를 갖고 입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헤거크스님께서 “여긴 뭐하러 오셨소? 스스로 목적인 바를 이루도

록 격을 높여 나가세요”라고 첫 말씀을 하시는데, 무언가 잘못을 들킨 아이처럼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방하착(放下着), 다 내려놓으라는 데 기본적인 마음자세가 펴 어설퍼서였으리라.

그렇게 참선 기초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헤거 크스님께서 ‘좌선의’ 강설을 통해 직접 가부좌 자세 등도 보여주시고, 또한 “일념이 되어야 삼매에 들 수 있으니, 명상표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집중 응시하여 일념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셨다.

크스님 말씀대로 50분 참선하는데, 처음에는 무릎관절도 아프고 호흡은 불

안정하며 일념은 커녕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다. “여기 참선하러 왔는데 왜 불편해 하시느냐? 기본수칙은 지키되 가능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도록 하시라”는 비구니 스님 말씀에 큰 격려를 받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갔다. 행여나 잘못 들어서지나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끊임없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계속해서 질타하시는 헤거 크스님 지도 하에 조금씩 무언가가 느긋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예컨대 화가 울컥 치밀기 직전에 그 눈을 잡아 눌러 화를 바로 가라앉히기도 했으니까.

참선공부 마지막 날 헤거 크스님께서 안수정등(岸樹井藤), 부모미생전(父

母未生前), 원상법문(圓相法問) 등 대표적인 화두를 상세히 설명하시고, 이제는 “이 같은 생사관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 그 해답을 스스로 체득해야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 온 천지가 불덩어리 같은 의정을 일으키기도, 감내하기도 어렵고, 두려운 마음도 든다. 그렇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자라고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그래도 한 발자국씩 나가기 위해 우리 금강선원 앞에 다시 서보기로 했다.

글 / 이상삼(29기 심우회 회장)

### 스스로 목적인 바를 이루려면 격을 높여야

### 참선 수행은 밥을 직접 먹는 행위



저는 만일 결사 수행하는 도중 천일이 되어 회향하는 자리에서 그간에 실행하고 겪었던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선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약 15년 전 쯤 되는 2002년에 길을 걷다가 불교 기초교리를 가르친다는 김포 승가대학 현수막을 보고 입학하여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다.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3개월만 다니면 불교가 무엇이라는 것쯤은 터득하겠지 했는데, 막상 수료하고 보니 입학하기 전보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은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승가대학 교수이던 분이 절에서 기초 교리를 가르치신다고 하기에 다시 3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좀 더 깊이 배워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마포 소재 불교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원불교 대학에서 2년 반을 수학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이러한 속도

로 나가다가는 내 생애 동안 12부경을 윤곽조차 파악 못 하겠구나’ 하고 낙담하던 차에 불교 방송에서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제하의 성철스님 동영상을 감명 깊게 시청했습니다.

여러 말씀 중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구경 목표는 깨달는 데에 있는 것인데, 비유하자면 깨달음이 밥 먹어 배부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팔만 사천 법문은 밥 먹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것이고, 참선 수행은 밥을 직접 먹는 행위와 같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수행을 해야겠구나’하던 차에 금강 선원에서 참선 반원을 모집한다는 불교신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에 등록하여 기초참선 23기로 수료하고 바로 만일수행결사에 참여하여 금년 12월에 천일 회향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00일 회향이긴 하지만 실제 수행한 날자는 897일입니다. 미 수행 일수는 103일인데, 그 중 신병으로 약 60일, 기타 사유로 43일입니다. 참선 수행 시간은 1,552시간이므로 1일 평균 1시간 40분 쯤 됩니다. 참선하면서 그간의 느

낌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우선 수행을 잘 하려면 몸 관리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 에어콘을 켜놓고 잠을 잤다가 독감이 걸려 두 달이 넘도록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계를 지키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계를 제대로 안 지키고서 참선한다고 앉아 있자니 온갖 잡생각을 떨쳐 버리기 어려워 고요히 하는 데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 저의 참선 자세는 반가부좌이고 수식관의 호흡을 하면서 간화선인 ‘이뻏고’를 합니다.

그간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5분 앉기가 두려울 정도로 온몸이 아프면서 저러왔습니다. 그럴 때 참으면 몸이 비틀리며 열이 났습니다. 신체적 반응으로는 과로하면 입술이 바로 부르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익숙해지면서 요즈음은 한번 앉으면 아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130분 정도 버틸 때도 있습니다. 80분 정도는 통증 없이 지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는 평소애 못 느껴본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주변의

소음도 덜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화를 내는 빈도도 줄어든 듯합니다. 힘은 들어도 지금에 와서 누군가가 참선하지 말라고 말린다면 제가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 팔십을 목전에 두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을 인생, 열심히 그리고 끝까지 정진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선원에는 만일수행결사가 있고, 만일결사 조직 하에 책임 맡으신 분들의 헌신적인 뒷받침과 팀원 상호 간에 적극적인 도움으로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세상 밖에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모든 분들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수행을 열심히 하여 만일 결사 강령에 부합하는 인격자가 되어 남을 돕고 사는 존재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지극 정성으로 큰 가르침을 주시는 크스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자리를 함께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도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글 / 김남원(본조)

## 화엄경

華嚴經

**BTN법문 금강선원 선원장 헤거스님**

첫방송 : 11월 15일 14시 50분

매주 화, 목, 일요일에 방송됩니다.

화요일:14시 50분 / 목요일:23시 / 일요일:11시 20분



<b>경전법회 안내</b>	
수요경전법회 육조단경 매주(수)	30개
금요경전법회 화엄경 매주(금)	38개
일요가족법회 고문진보 매주(일)	46개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b>문화특강 안내</b>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33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32개
<b>제사 안내</b>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36개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33개
<b>혜거스님 강의 TAPE</b>	
금강경(육조주석)	35개

금강경(종경주석)	30개
금강경(야보송)	38개
육조단경	46개
원각경	33개
유식 30송	32개
일체유심조	36개
선요	33개
승만경	24개
한산시	16개
법화경약의	57개
사성제품	6개
초발심자경문	11개
태고보우선어록	15개
능엄경 55위	12개
반야심경	47개
아마천궁계찬품	7개
신심명	8개
심우도	5개

참나(좌선의)	8개
선가귀감(2013)	25개
서문	26개
천수경	12개
New 대승기신론	40개
New 한비자(혜거스님)	26개
<b>혜거스님 강의 CD</b>	
금강경(육조주석)	35장
금강경(종경주석)	30장
금강경(야보송)	38장
육조단경	46장
원각경	33장
유식30송	32장
일체유심조	36장
선요	33장
천수경	12장

능엄경 55위	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	15장
반야심경	4장
신심명	4장
태고어록	12장
법성계	5장
서문	26장
맹자 진심장(박완식교수)	45장
영가집 특강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	15장
New 대승기신론	40장
New 도덕경	47장
New 맹자 진심장(혜거스님)	26장
New 한비자(혜거스님)	26장

☎ 문의 : 교무팀 02-445-8484  
☎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10월 보시내용

- 보시금** | 조현숙, 강민정, 천화당한의원, 유영희, 박병남, 박병의 박영숙, 한경자  
**보시물** | 장기팔, 김양희, 박근호, 서동수,  
**대중공양** | 노기동,  
**대중떡공양** | 정재호 최명규, 최영아, 명은정, 채현석, 정한욱, 최지우, 송지선, 윤희순, 최봉훈, 정다운, 최유정, 김수형 정래훈,  
**신문보시금** | 이진우,  
**꽃보시** | 연심행, 능지행,  
**금강경강송대회보시금** | 하경식, 의락성, 대치1선등, 배태숙, 반야회, 돈각심, 정동희, 용인수지선등, 목요독송반

### ◆ 11월 보시내용

- 보시금** | 혜정화, 대자월, 박성희, 김동완, 참선반, 최선희, 천화당한의원, 해광월, 금상화  
**보시물** | 박순수, 동명한의원, 만선행, 동명한의원, 이영, 남광희, 이영환, 이수경, 장기팔, 이연숙, 문현상, 편종욱,  
**대중공양** | 고용석 김경준, 33기불대, 민영자, 최우진,  
**대중떡공양** | 최성원, 이기영, 김미숙, 윤희순, 참선반, 여래심, 하광종, 김무섭, 선각화, 금상화, 자재련, 박찬희, 안태진, 하경식, 이주영, 보문행, 최혜영, 하경화, 김소정, 신은정, 정안심, 신문보시금 : , 청정궁, 황법왕심,  
**꽃보시** | 연심행, 능지행,  
**금강경강송대회보시금** | 보리성, 법인행, 견지행, 강북선등, 박병의, 이선경, 정대법화, 강영희, 자재회, 송파선등, 등각행, 각화심, 최철민, 최희경, 양정일, 양정이, 이미선, 김중수, 각윤월사무실팀, 최우진, 청화당, 윤광하, 심을택, 무주상, 일원선등, 능지행, 진여심, 정경심, 최열해행, 박해광월, 조영신, 김영애, 박주홍, 박주현, 박무영, 김옥경, 37기불대, 장동주 김지훈, 선자행, 김용범, 대지행, 정안심, 금강회,  
**달력보시금** | 압구정선등, 박병남, 박병의, 조화순, 의락성, 이기성, 김양희, 여래장, 노중구, 장기신, 성도화, 박무영, 김영복, 능지행, 김철관, 자재회, 김진열, 김소민, 고종식, 하중락, 한성수, 주정효, 박영자, 이미선, 정경심, 개포2선등, 김용순

##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 화엄경 설 판 동 참

- 1-1658~1667 이상수
- 1-1680~1689 김윤곤
- 1-1699~1707 북카페2
- 1-1714~1723 양옥희
- 1-1733~1742 장현진
- 1-1743~1752 류갑묵
- 1-1757~1766 안창환
- 1-1780~1789 최미란
- 1-1792~1800 엄성범

- | 구      | 좌 | 동 | 참   |
|--------|---|---|-----|
| 1-1655 | 일 | 원 | 선 등 |
| 1-1656 | 서 | 귀 | 선   |
| 1-1657 | 송 | 윤 | 서   |
| 1-1658 | 박 | 유 | 승   |
| 1-1669 | 박 | 세 | 은   |
| 1-1670 | 신 | 은 | 경   |
| 1-1671 | 강 | 세 | 화   |
| 1-1672 | 최 | 남 | 주   |
| 1-1673 | 정 | 정 | 례   |
| 1-1674 | 남 | 광 | 희   |
| 1-1675 | 김 | 경 | 진   |
| 1-1676 | 강 | 영 | 환   |
| 1-1677 | 강 | 정 | 환   |
| 1-1678 | 조 | 선 | 홍   |
| 1-1679 | 정 | 제 | 면   |
| 1-1690 | 박 | 지 | 현   |

- |        |   |   |       |
|--------|---|---|-------|
| 1-1691 | 박 | 정 | 연     |
| 1-1692 | 한 | 성 | 수     |
| 1-1693 | 정 | 동 | 희     |
| 1-1694 | 3 | 2 | 기 불 대 |
| 1-1695 | 박 | 병 | 규     |
| 1-1696 | 이 | 동 | 기     |
| 1-1697 | 박 | 선 | 임     |
| 1-1698 | 진 | 태 | 용     |
| 1-1708 | 양 | 석 | 모     |
| 1-1709 | 나 | 여 | 주     |
| 1-1710 | 우 | 창 | 희     |
| 1-1711 | 한 | 진 | 숙     |
| 1-1712 | 유 | 준 | 규     |
| 1-1713 | 3 | 5 | 기 불 대 |
| 1-1724 | 이 | 영 | 자     |
| 1-1725 | 해 | 주 | 스님    |
| 1-1726 | 한 | 석 | 재     |
| 1-1727 | 김 | 태 | 연     |

- |        |   |   |   |
|--------|---|---|---|
| 1-1728 | 박 | 성 | 구 |
| 1-1729 | 김 | 순 | 애 |
| 1-1730 | 유 | 해 | 숙 |
| 1-1731 | 최 | 민 | 석 |
| 1-1732 | 추 | 민 | 석 |
| 1-1753 | 이 | 국 | 봉 |
| 1-1754 | 이 | 현 | 곤 |
| 1-1755 | 최 | 정 | 환 |
| 1-1756 | 김 | 완 | 기 |
| 1-1767 | 이 | 영 | 배 |
| 1-1768 | 김 | 민 | 수 |
| 1-1769 | 이 | 종 | 은 |
| 1-1770 | 이 | 래 | 은 |
| 1-1771 | 고 | 점 | 순 |
| 1-1772 | 박 | 성 | 희 |
| 1-1773 | 정 | 상 | 옥 |
| 1-1774 | 김 | 종 | 영 |
| 1-1775 | 이 | 정 | 빈 |

- |        |   |   |   |
|--------|---|---|---|
| 1-1776 | 채 | 수 | 정 |
| 1-1777 | 신 | 혜 | 승 |
| 1-1778 | 김 | 미 | 숙 |
| 1-1779 | 김 | 선 | 두 |
| 1-1790 | 박 | 인 | 상 |
| 1-1791 | 박 | 재 | 민 |

- 화엄경 영가 구 좌 동 참**  
**영구 위 패 동 참 자**  
 유 승 현 영 가  
 손 창 호 영 가  
 최 숙 자 영 가

